

전남 9483억 투입 한우산업 키운다

한미 FTA 대비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발표
2016년까지 품질고급화·유통구조 등 개선

전남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수입 개방에 따른 한우 경쟁력 확보 방안을 내놓았다. 한우산업의 생산비 절감과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 소비 촉진 정책 등을 위해 2016년까지 9483억원을 투입,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0일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우산업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우산업을 전남의 대표적 소득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산비 절감 ▲친환경 축산을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 촉진 등을 위한 23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조사료 재배 면적을 2015년까지 9만㏊로 확대하고 시·군단 조사료 전용단지 조성 정책을 추진하는 등 생산비 절감에 힘을 쏟기도 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해 올해 342농가에 872억원을 지원하고, 기축운동장 확보를 위한 응자 사업도 크게 늘릴 예정이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유통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전남도

는 600억원을 투입, 축산물 도축·가공 등 종합 처리를 위한 축산물종합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축산물 가공 시설을 81개소에서 200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2015년까지 지역 브랜드경쟁력 가맹점 100개를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시·군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할인 판매에 나서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펼친다.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부풀려진 유통 거품을 빼고 판매 가격을 낮추게 되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전남은 이밖에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은 암소의 경우 50만원, 송아지를 생

산한 암소를 도태할 경우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송아지 가격이 안전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미리당 40만원까지 보전금을 지급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친환경축산물 전국 50% 생산, 경영비 15% 절감, 유통비용 20% 절감, 1등급이상 고급육 80% 확대를 달성, 도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한우 사육 과잉과 소비 감소, FTA 체결로 인한 수입량 증가 등으로 소 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한우산업을 전남의 소득산업으로 정착 시키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오현고택 사랑채



신와고택 장독대

장흥 오현고택·신와고택 국가문화재 승격 예고

전남도는 장흥의 신와고택(新窯古宅)과 오현고택(梧軒古宅)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인 중요 민속문화재로 승격·지정 예고됐다고 12일 밝혔다.

오현고택은 남도 대농 양반 집 안의 대표적 사례로 안채, 사랑채, 사당, 문간체, 연못 등 축조 당시

거 생활적 특징 등의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지정 예고했으며 앞으로 30일 동안 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요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남도 축제' 봄 기지개

전남도 올 39개 지역축제 일정 발표

남도 축제가 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전남도는 12일, 올 한 해 펼쳐지는 39개 지역축제 현황과 개최 일정 등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봄꽃 축제의 시작을 여는 광양매화축제는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일대에서 펼쳐진다.

봄의 전령인 산수유꽃축제도 예년 보다 5일 가량 늦은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구례군 산동면 일원에서 열린다.

가장 긴 봄축제인 완도 청산도 슬로우걷기축제는 4월 1일부터 30일간 완도 청산도에서 열린다. 청산도의 걷기축제는 지난해 불편한 벽길에도 불구하고 7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던 인기 축제다.

영암 왕인문화축제(4월 6일~9일), 목포 유달산꽃축제(4월 7~8일),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4월 7~9일), 신안아름다움축제(4월 20~29일) 등은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열려 관광객들을 불러들인다. 또 담양·보성 등은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한 축

■ 2012 지역 축제 개최 일정

월	축제명	축제일정	월	축제명	축제일정
3월	광양매화문화축제	3.17~3.25	7월	영광개발미로축제	7.21~7.22
	구례산수유꽃축제	3.22~3.25		여수국제청소년축제	7.23~7.29
	해남땅볼문화축제	3월 말		정총정남진물축제	7.27~8.2
4월	완도 청산도 슬로우 걷기축제	4.1~4.30	8월	신안섬갯벌축제	7.27~7.29
	영암왕인문화축제	4.6~4.9		강진청자축제	7.28~8.5
	목포 유달산꽃축제	4.7~4.8		목포해양문화축제	7월 말
	진도신사바닷길축제	4.7~4.9		무안백련문화마당	7월 8월
5월	신안틀립축제	4.20~4.29		영광불갑산문화축제	9.21~9.23
	고흥우주과학생태체험전	4월 중		명량대첩축제	미정
	함평나나디축제	4월 말~5월 초		보성소리축제	10.6~10.7
	여수거북선축제	5.3~5.6		국성실천문화대축제	10월 초
	장성홍길동축제	5.4~5.6		남도음식문화관전차	미정
10월	원도장보고축제	5.4~5.6		구례동편제소축제	10.19~10.21
	담양대나루축제	5월 중		한평경향대전	10월 말~11월
	보성다향제	5.16~5.20		니주영산문화축제	10.29~10.31
	회순운주문화축제	5.26~5.28		구례자리산마을단풍축제	10.29~10.30
	곡성장미축제	5월 말~6월 초		영암왕인문화축제	10월 11월
	고흥 녹동비단꽃축제	5월 중		순천민갈대축제	10월 중
6월	영광법성단도·굴비	6.22~6.24		장성백암단풍축제	11.2~11.3
				보성처발빛축제	12.14~12.21

제(보성 다향제·담양 대나루축제) 일정을 수립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통

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전략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강운태 시장 '소통·공감 행정' 이어간다

전국 최초 민생보고회 개최 등 시민·공무원과 잇단 만남

김운태 광주시장이 올해를 '소통과 도약의 해'로 정하고 연초부터 시민은 물론 공직자들과도 잇따라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폭넓은 소통과 공감 행정을 위해 발 뻗어 나서고 있다.

강 시장은 조직 내부의 소통에도 역할을 두고 공무원과의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8일 시와 5개 구청에 근무하는 2030세대 젊은 공무원 60명과 함께 시청에서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강 시장은 오는 4월까지 여성공무원, 소방공무원, 협업기관 공무원, 기능·무기계약 공무원 등 5개 분야 공무원들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 뒤 시민이 궁금한 점을 물고 즉석

강 시장은 올 들어 주말마다 시 직원들과 함께 광주 근교 산행을 함께 하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엔 어등산과 금당산을 각각 올랐으며, 앞으로는 제석산과 삼각산, 용진산 등 각 자치구에 위치한 산을 찾을 예정이다.

이와 앞서 강 시장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매주 한 차례 시민과 만남의 날을 진행, 12일 현재 78회에 걸쳐 302팀 1205명을 만나 385건의 협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 시장은 "올해는 소통과 도약을 화두로 훌륭한 청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시민과의 만남, 공무원과의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148만 광주시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

광주서 10월 '세계 아리랑 축전' 개최

추진위원장에 고은 시인

아리랑을 소재로 한 '세계 아리랑 축전'이 오는 10월 광주에서 개최된다.

광주시는 오는 10월 4일간 일정으로 9개의 예산을 들여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등에서 세계아리랑축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진도·정선·밀양 아리랑 등 국내 대표적인 아리랑을 접대성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미래 문화의 광주정신으로 승화 발전

2016년 외국인 관광객 50만명 유치

광주권 관광개발계획 확정

광주시가 호남권 관광의 중심 허브 도시 기능 수행 및 외국인 관광객 50만명 유치 등을 목표로 한 제5차 광주권 관광개발계획안을 지난 8일 확정, 공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2012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광주권 관광 개발계획을 반영하는 법정계획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계획안은 문화예술 중심의 구도심과 중추업무 중심의 신도심을 한데 묶은 도심관광권, 그리

고 도시 주변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녹색환경권 등 2개의 관광권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금남로·무진로 일대의 중심밸리, 첨단단지·혁신도시까지 첨단산업밸리, 영산강과 황룡강 등을 이은 생태환경밸리의 3대 죽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광주시가 도심 관광자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가꾸며 주변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총행기자 redplane@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5년

대중교통 이용객·시민만족도 ↑

광주시가 지난 2006년 1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대중교통 이용객과 교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 간 통합환승체계에 기반을 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이뤄지고 무료

환승이 확대되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하루 3만500명, 연간 1290만여명이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또, 교통수단 간 무료 환승에 따른 교통비 경감 등 각종 교통 편의를 비롯으로 환산하면 5년간 14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버스 도착시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운행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에 따른 성과이용 배분방식을 적용해 업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서비스 민족화가 준공영제 시행 원년인 2007년 85.1점에서 2011년 96.1점으로 크게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차 거리 단축에 의한 연료비 절감, 공동구매 등 원가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재정지원금을 국고로 보존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총행기자 redplane@

국가공인 (2010. 11.24 교과부 제2010-1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제14기)

※국가공인등급(특급·1급·2급·3급)

▶모집기간 : 2012년 2월 1일(수) ~ 2012년 3월 5일(토)

▶연수기간 : 2012년 2월 28일(화) ~ 2012년 8월 9일(토) 24주(96시간)

▶과정명 개강 일시 모집인원

3급반	화요일(오전) : 2012년 2월 28일(화) 09:30~17:30	각25명
2급반	목요일(오전) : 2012년 3월 1일(목) 09:30~17:30	25명
특급반	수요일(오전) : 2012년 2월 29일(수) 09:30~17:30	25명